

상속,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과
2026년에 바뀐 것만 모았습니다.

무료 입문서 · 누구나 한 시간이면 읽습니다

신대식 · 申大湜 · Syn Dae Sik | AFPK · RC · 한국재무설계(주)
www.finitart.com | itart@finitart.com | 010-2088-5383

이 책자를 펴내며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와 "그건 나중에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일이 닥치면, 똑같이 후회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적은 세금으로, 훨씬 적은 다툼으로 끝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자는 상속을 처음 마주한 분이 **한 시간 안에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과 2026년 변경점만 추렸습니다. 어려운 법조문 대신,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인터넷에 "상속세가 40%·4단계로 바뀌었다"는 글이 많습니다. 그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행은 여전히 **최고 50%·5단계** 누진입니다. 이 책자는 현행법과 2026년 시행 민법 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책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분쟁 대응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序	왜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1부	상속,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 다섯
2부	우리 집은 어떤 케이스? — 셀프 진단
3부	흔한 실수 10가지
4부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5부	네 가지 솔루션 — 보험·유언·신탁·법인
終	다음 단계
부록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 · 용어 사전 · 면책

왜 미리 준비 해야 하는가

상속은 떠난 뒤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준비의 유무가 가족
의 미래를 가릅니다.

상속은 부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평범한 가정도 "상속세 없는 집"에서 "상속세 내는 집"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준비가 없으면 **선택지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미리 알면 증여로 나누고, 보험으로 현금을 만들고, 유언으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난 뒤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은 가족은 6개월 안에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고, 받을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골이 생깁니다.

상속의 세 가지 얼굴

상속은 세 가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 **세금** — 상속세·증여세. 얼마를, 언제, 어떻게 낼 것인가.
- **분배** — 누가 얼마를 받는가. 유류분과 형평의 문제.
- **절차** — 승인·포기·신고.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이 셋은 따로 놓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다 분쟁이 생기고, 분배를 정리했더니 낼 현금이 없는 식으로 엽힙니다. 그래서 상속은 **한 분야만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 법·세무·보험을 함께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 책자를 다 읽으면 ① 우리 집이 상속세 대상인지, ② 가장 흔한 함정이 무엇인지, ③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④ 어떤 도구로 대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 다섯

딱 다섯 가지만 알아도 절반은 대비한 것입니다.

핵심 ① 면세 경계 — 5억 vs 10억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더해져 통상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은 6억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거래가로 9억이면 그 9억이 기준이 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면 이 경계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핵심 ② 세율은 누진 5단계 — 최고 50%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3%)가 더해집니다.

핵심 ③ 6개월의 시간 제한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려받은 게 부동산뿐이면 낼 **현금**이 없습니다. 이때 집을 급매하거나 대출을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전 포인트 · 분할납부(연부연납)·물납 제도가 있지만 요건과 이자 부담이 따릅니다. 가장 깔끔한 해법은 종신보험 등으로 **납부 자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핵심 ④ 증여는 10년 단위로 합산된다

미리 나눠 주는 사전증여는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다만 **증여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상속인 기준)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도 10년을 나눠 두 번 증여하면 공제를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핵심 ⑤ 보험금도 상속세 대상이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세법에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깁니다. "보험금은 세금이 없다"는 흔한 오해입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함께 보기 — 집 한 채인데 세금이?

"우리는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아파트 등 상속재산 (시가)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가정)	5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
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9,000만 원
예상 상속세 (개략)	약 9,000만 원

배우자가 없다면 공제가 5억 줄어 과세표준이 10억으로 뛰고, 세금은 훨씬 커집니다. "집 한 채"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내 숫자는 finitart.com의 상속세 계산기에서 1분 만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공제·평가를 단순화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떤 케이스?

아래 진단으로 내 상황의 출발점을 잡아보세요.

30초 셀프 진단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비가 필요합니다.

- ☐ 재산 합계가 **5억**(배우자 없음) / **10억**(배우자 있음)을 넘는다
- ☐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당장 낼 현금**이 마땅치 않다
- ☐ 사망보험금·퇴직금 등 한 번에 들어올 큰돈이 있다
- ☐ 자녀가 여럿이고, 특정 자녀에게 미리 많이 준 적이 있다
- ☐ 가족 중 사이가 틀어진 관계가 있다(분쟁 가능성)
- ☐ 장애가 있는 자녀·가족이 있다
- ☐ 사업체·임대자산을 자녀에게 넘길 생각이 있다

유형별 — 가장 먼저 볼 것

유형	출발점
재산이 부동산 중심	납부 자원(현금) 설계 — 보험 활용
자녀 간 형평 걱정	사전증여 설계 + 유류분 점검
분쟁 가능성	유언(유언대용신탁) + 유류분 시뮬레이션
장애 자녀	장애인 신탁(5억 비과세) + 보험(연 4천만 비과세)
빚이 더 많아 보임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판단
사업·임대자산 승계	법인 활용 승계 설계 검토

각 유형의 예상 금액은 finitart.com의 **상황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산재·화재 보상부터 상속세·장애인 신탁·유류분까지, "내 경우"를 1분 만에 추정합니다.

흔한 실수 10가지

전부 실제 판례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① "우리는 세금 낼 일 없어요"

시가 평가를 간과한 착각입니다. 공시가로 안심했다가 실제 거래가 기준으로 경계를 넘는 일이 흔합니다.

② 보험금엔 세금이 없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큰 보험금일수록 세금도 큼니다.

상증법 § 8

③ 며느리·사위는 남이다?

배우자(아들·딸)가 먼저 떠나면, 남은 사위·며느리가 처가·시부모의 재산을 대신 받는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 형제자매보다 앞섭니다. 단, 재혼하면 그 자격은 사라집니다.

민법 § 1001·§ 1003·대법원 99다13157(광 항공기 사고)

④ 상속포기했는데 할머니에게 빚이

자녀가 빚 때문에 포기하면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부모·조부모)로 넘어갑니다. 조부모까지 함께 포기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손자의 빚을 떠안습니다.

민법 § 1000

⑤ 손으로 쓰면 유언이 된다?

자필 유언장은 날짜·주소·성명과 **날인(도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도장 하나가 빠져 거액의 기부 유언이 통째로 무효가 되고, 재산이 엉뚱한 상속인에게 넘어간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민법 § 1066

⑥ 오래전 증여는 상관없다?

상속분 계산에서 특별수익(미리 받은 재산)은 시효가 없습니다. 수십 년 전 증여도 형평을 따질 때 그대로 합산됩니다.

민법 § 1008

⑦ 딸이라 못 받는다?

유류분으로 최소한의 몫이 보장됩니다. 아들이 받은 생명보험금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들어갈 수 있어, 통장 잔액만 볼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0다247428

⑧ 한정승인하면 세금도 없다?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할 뿐입니다. 상속세·양도세 등 세금 문제는 별개로 남으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⑨ 배우자공제는 자동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고 기한 내 분할·신고해야 큰 공제를 받습니다. 절차를 놓치면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몇 배로 뛵니다.

⑩ 나중에 하면 되지

증여공제도, 합산도 10년 단위입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그 나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최근 개정만 따로 모았습니다. 오래된 정보와 헛갈리지 마세요.

①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상속권과 대습상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② 유류분, 원칙적으로 '돈으로' 반환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가액(금전) 반환**으로 정비되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잘게 쪼개 돌려주는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가업이나 집을 지키려는 가정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거 · 민법 § 1115 (2026. 3. 17. 시행)

③ 구하라법 — 부양 안 한 부모의 상속권 박탈

어린 자녀를 버리거나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상속인의 청구로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1.1 시행, 3.17 확대).

근거 · 민법 § 1004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④ 결격·상실자의 배우자는 대습 제한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로 상속받지 못하게 된 사람의 배우자는, 더 이상 그를 대신해 대습상속을 할 수 없도록 정비되었습니다(2026.3.17 시행).

⑤ 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증여에 대해 각각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성년 자녀 공제(5,000만 원)와 별도로 쌓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2024년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40%·4단계, 자녀공제 5억"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된 것처럼 쓴 글이 많지만, 현행은 **50%·5단계**입니다. 오래된 정보로 잘못 판단하지 마세요.

5부

네 가지 솔루션

상황에 맞는 도구를 고르면 됩니다.

솔루션 ① 보험 — 납부 재원과 분쟁 정산

종신보험 등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상속세 낼 **현금**을 정해진 날에 만들어 줍니다. 둘째, 유류분 분쟁이 예상될 때 부동산을 쪼개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하는 재원이 됩니다.

다만 수익자와 보험료 부담 구조에 따라 같은 보험금이 상속세(간주상속)와 유류분(특별수익)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입"보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솔루션 ② 유언 — 의사는 분명히, 형식은 정확히

유언은 누가 무엇을 받을지 미리 정해 다툼을 줄입니다. 자필증서는 형식 요건(날짜·주소·성명·날인)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는 **유언대용신탁**으로 "살아 있을 때는 내가, 사후엔 지정한 대로" 재산이 흐르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③ 신탁 — 특히 장애 자녀의 미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다면 신탁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신탁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자익·타익 합산), 장애인 수익 보험금은 **연 4,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핵심은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매달 얼마를, 몇 년간 받을 수 있는가"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세금이 아니라 **생활의 지속**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증법 § 52의2(장애인 신탁) · § 46(장애인 보험금) · § 20(장애인 상속공제)

솔루션 ④ 법인 — 사업·자산 승계

기업이나 임대자산이 있다면 법인을 활용한 승계로 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

이 책자는 전체 그림을 빠르게 잡기 위한 입문서입니다. 내 경우의 구체적 숫자가 궁금하시다면 —

① 상황별 계산기

상속세·교통/산재/화재 보상·장애인 신탁·유류분(양날의 검)을 1분 만에 추정

www.finitart.com

② 무료 상담

법·세무·보험을 함께 보는 관점에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답을 드립니다

itart@finitart.com · 010-2088-5383

③ 전체 안내서 「상속설계의 기술」 (136쪽)

30개 장에 담은 깊이 있는 실전 안내서 —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봅니다. — HeirWise · Syn Dae Sik (申大湜)

체크리스트 · 용어 사전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

- ☐ 우리 가족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시가·예금·보험·부채)
- ☐ 면세 경계(5억/10억) 대비 우리 집 위치 확인
- ☐ 사망보험금 수익자·보험료 부담자 점검
- ☐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 정리
- ☐ 유언(또는 유언대용신탁) 필요 여부 검토
- ☐ 납부 자원(현금) 확보 방안 점검
- ☐ 장애 가족이 있다면 신탁·보험 설계 검토
- ☐ 분쟁 소지가 있다면 유류분 미리 시뮬레이션

용어 사전

용어	뜻
일괄공제	상속세에서 기본으로 빼주는 5억 원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큰 공제(최소 5억)
간주상속재산	법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보험금·퇴직금 등
유류분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몫
특별수익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 등(상속분 계산에 합산)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상속인 대신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받는 상속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상속

유언대용신탁	생전엔 본인이, 사후엔 지정한 대로 재산이 흐르게 하는 신탁
연부연납	상속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내는 제도(이자 부담 있음)

면책 안내 · 본 책자는 일반 정보 제공용 추정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수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은 2026년 시행 개정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HeirWise · Syn Dae Sik (申大湜). 무단 전재·배포를 금합니다.